

원효

『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論

下 664b24-667b15

불교교학전공 석사1학기

이언경 20260261

## I. 세계 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철학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의 과시나 관념적 논쟁에만 있지 않다.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유의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황 원효의 철학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불교 교학의 체계에 머물지 않는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인간이 지각 조건에 따라 세계를 차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차별적 현상인 상(相)에 집착함으로써 미혹과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중요한 성찰 대상으로 삼는다. 원효에게 상(相)은 단순한 외적 형상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구성되는 분별의 구조와 관련된다. 문제는 이 분별이 자기 관점의 상대성을 자각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하나의 관점은 스스로를 절대화하고, 다른 관점은 배제되거나 왜곡된다. 이때 차이는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과 배타성의 원인이 된다. 원효의 사유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차이의 발생 조건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집착의 문제이다.

원효 철학의 세계 철학사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개별적 차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그 차이

들이 배타적 충돌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는 오히려 각각의 입장이 지닌 의미를 보존하면서, 그 입장들이 서로를 향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사유는 ‘동일성이라는 인지 환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비판하고, 상호 개방과 상호 수용을 통해 상호적 관계를 구성하려는 원효의 철학적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sup> 이 점에서 원효의 사상은 동아시아 불교 내부의 교학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의 철학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 세계 역시 종교, 이념, 문화, 정체성의 차이가 배제와 개인의 고립, 갈등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원효의 사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어떻게 집착과 폭력으로 변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들이 자기 폐쇄성을 넘어 상호 주관적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세계 철학사에서 원효의 지위는 거대한 형이상학 체계를 세운 사상가라는 점보다, 분별과 집착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체함으로써 소통과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사상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차이의 발생 조건을 성찰하고, 그 차이들이 서로를 비추며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바로 이 점에서 원효의 사유는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철학의 의미를 지닌다.

## II. 동아시아불교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분황 원효의 사상사적 위상은 단순히 신라 불교 내부의 한 고승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평가될 수 없다. 원효가 활동하던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는 구역 경론과 신역 경론의 차이, 교종과 선종의 긴장, 천태와 화엄의 사상적 대립, 중관과 유식의 해석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던 시기였다. 특히 현장玄奘의 귀국과 신역 경론의 번역은 기존 경론 이해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공하였고, 보리달마 이후 선 관련 전통의 전개는 교학 중심의 불교 이해와 수행 중심의 불교 이해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낳았다. 신라 불교계 역시 견당사와 유학승, 실크로드 교류 등을 통해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사상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sup>2)</sup> 당시 신라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사상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전을 편찬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에 투철한 몇몇 주역들이 종래의 교종·선종 및 신역 경론 등을 참고하여 『금강삼매경』을 찬술했다고 보고 있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원효의 위상은 여러 사상적 대립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수용한 데 있지 않고, 그 대립들을 하나의 불교적 문제로 읽어내고 회통하려 했다는 데 있다.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는 중관의 공소 사상과 유식의 유유 사상, 천태의 성구설과 화엄의 성기설, 교종 강사와 선종 선사들의 갈등, 출가 승려와 재가 장자

1) 박태원, 『금강삼매경론·상』, 세창출판사, 2020, p.32

2) 고영섭,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제7집, 2020, 129-130

3) 고영섭, 『붓다와 원효의 철학』, 학교법인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p.475-476

의 관계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다. 원효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한 학파의 입장에서 배제하거나 단순 종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각각의 교설이 지닌 문제의식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불교의 해탈과 중생구제라는 목적 안에서 어떻게 회통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을 것이다.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중관과 유식, 공과 유, 진제와 속제의 대립을 회통하려 한 사상가이다. 둘째, 그는 교학과 선 수행의 분리를 넘어 대승 교학의 핵심을 삼매와 관행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한 대승선의 해석자이다. 셋째, 그는 일심과 본각, 시각과 본각의 관계를 통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제시한 사상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효는 신라 불교의 사상가를 넘어, 동아시아 불교가 직면한 교학적·수행론적 문제를 한국 불교의 언어로 재구성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효의 위상은 교학과 선禪의 관계를 재구성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금강삼매경론』은 조사선 전통의 문헌은 아니지만 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수많은 대승경론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sup>4)</sup> 그 내용 속에는 무분별無分別, 무집착無執着, 본래성불本來成佛,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감, 이타행의 실천 등 선 수행의 핵심 원리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중국 선법의 본격적인 한국 전래 이전에 이미 해동에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조사선법의 원리와 수행론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었고<sup>5)</sup> 이 견해를 그대로 단정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효가 교학적 주석 속에서 선 수행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중국인들이 『송고승전』에서 『금강삼매경』의 편집자와 강설자 및 주석가로서 모두 신라인을 부각 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한반도 신라 땅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6)</sup> 이를 통해 동아시아 에서의 원효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4) 『능가경』, 『여래장경』, 『법화경』, 『화엄경』, 『대반야경』, 『부증불감경』, 『합부금광명경』, 『반주삼매경』, 『입능가경』, 『승만경』, 『해심밀경』, 『보살영락본업경』, 『대반열반경』, 『잡아함경』, 『법망경』, 『인왕반야경』, 『법화론』, 『불성론』, 『대지도론』, 『십지경론』, 『결정장론』, 『현양성교론』, 『미륵보살소문경론』, 『보성론』,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유가사지론』, 『현식론』, 『섭대승론석』, 『중변분별론』, 『대승광백론석론』, 『조론』, 『대승기신론별기』, 『이장의』 등 30여 가지가 넘는다.

원효 著, 김호귀 譯, 『금강삼매경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p.14.

5) 김호귀, 「『금강삼매경론』의 선수행론 고찰」, 『불교학보』 제58집, 2011, p.105-106

6) 박태원, 「원효의 선(禪) 사상: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8, 새한철학회, 2012, p.15.

### III. 분황 원효에게서 『금강삼매경론』의 의미와 가치

원효의 전체 저술 세계에서 『금강삼매경론』이 지닌 의미와 가치는 그의 평생에 걸친 교학적 탐구와 실천적 화쟁 의지를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집대성한 사상적 정수가 담겨 있다는 데에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7세기 한반도의 불교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효가 선을 주제로 삼아 자신의 사상을 총결산 하고 있는 저술이라 볼 수 있다.<sup>7)</sup> 『금강삼매경론』에는 『기신론소』와 『기신론별기』 및 『이장의』 등 원효의 저술이 인용되고 있지만, 원효의 다른 저술에 『금강삼매경론』이 인용된 예가 없으므로, 『금강삼매경론』이 그의 만년에 쓰여 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sup>8)</sup> 원효는 중년기 저술인 『대승기신론별기』에서 공·유 대립의 화쟁적 종합을 기획했으나 기신론 사상 자체가 유식학적 맥락에 경도되어 있어 두 사상을 등가적으로 화회(和會)시키기에는 텍스트적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고 『소(疏)』를 지을 때 대의문 구절을 삭제했다. 공·유 대립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더 절절한 문헌을 갈구하던 원효에게 『금강삼매경』이 그의 화쟁 논리와 대승 선학을 유감없이 전개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적 공간을 제공했음을 밝혀낸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제시한 이론적 지형(본각→불각→시각)을 토대로 삼으면서도, 본 저술에서는 수행의 실천적 관점인 ‘시각→본각→불각’의 순서로 전개되는 ‘일각(一覺)’의 지형을 도출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상관성을 확립해 냈다고 평가 되기도 한다.<sup>9)</sup>

### IV. 『금강삼매경론』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들어간 결과인 ‘한결같은 현상’

범위\_ 664c~667b

664b24-c1

【經】

爾時，如來，而作是言。諸善男子，  
汝等諦聽。爲汝衆等，說於常法

그 때 여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그대들은 잘 들어라.  
너희 대중들을 위해 영원한 법(常法)을 설하겠다.

7)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 6품 해석학」, 『철학논총』 제77집.제3권 2014, p.384

8) 원효, 은정희 송진현 역주, 『(원효의)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p.20.

9) 고영섭, 앞의 글, p.125

664c2-c4

【論】

此下，第四入果常法。於中有三，一如來說，二長者演，其第三者 大衆得益。初中有二，許說正說，此即許說。

이 글 이하는 (<‘들어가는 수행’과 ‘들어가는 지혜’의 원인과 결과의 차이를 드러냄>의 네부분 가운데) 네 번째인<sup>10)</sup>, 입과상법(入果常法)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래께서 설하는 부분, 둘째는 (범행)장자가 부연하는 부분, 그 셋째는 대중들이 (설법을 듣고) 이로움을 얻음 이다. 첫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법(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곧바로 설하는 것인데, 이 글은 설법(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664c5-c8

【經】

善男子，常法非常法，非說亦非字，非諦非解脫，非無非境界，離諸妄斷際，是法非非常，離諸常斷見。了見識爲常，是識常寂滅，寂滅亦寂滅。

선남자야, 상법(常法)은 상법이 아니다.<sup>11)</sup>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없다.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로 나타난 것도 아니어서, 모든 망집(妄執)과 단견(斷見)의 경계를 떠났다. 이 법은 덧없는 것(無常)이 아니므로 일체의 상견\_항상있다는 견해(常見)과 단견\_완전히 없어진다는 견해(斷見)을 떠난 것이다.

없는 것도 없고 경계도 없지만 모든 허망과 단멸의 변견을 떠나 있다. 이 상법은 무상도 없지만 모든 상견과 단견을 떠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본다면 분별식이 그대로 상법이 된다. 이에 그 식이 항상 적멸하고 그 적멸도 또한 적멸하다.

(모든 식(識)을 투철하게 보면 상(常)이 되나니, 이 식(識)은 항상 적멸하며, 적멸이라는 그것도 적멸하다.)

664c9-665a7

【論】

此下，第二正說。於中有二，先說常果，後示常因。

初中二句，法常佛常。初中言 常法非常法者，謂佛所師，法身之體，離生滅相，故曰 常法，離常住性，故 非常法。非說亦非字者，絕能詮名言故，非諦非解脫者，超所詮實義故。非無非境界，離諸妄斷際者，非畢竟無，亦非有境，非有境故，離妄執境，而非無故，離斷見境。際者，境界之異名也。

10) 무량한 법이 여래장에 들어감을 설하는 『여래장품(如來藏品)』은 크게 제법과 제행이 한곳에 들어감을 밝히는 대목[諸法諸行同入一處]과 들어가는 행과 들어가는 지혜의 인과차별을 밝히는 대목[入行入智因果差別]으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입행차별(入行差別), 입지차별(入智差別), 입인사용(入因事用), 입과상법(入果常法)의 넷으로 나뉜다.

11) 법은 상법이 아니다 : 진제의 상법은 속제의 상법이 아님을 가리킨다

是法非無常，離諸常斷見者，非無常故，離諸斷見，而是法故，  
離諸常見，常見所取非是法故。已明法常，次顯佛常。

了見識爲常者，於彼常法，究竟了見，了見之時，諸識爲常。  
所以然者，前隨無明，動本靜心，今隨了見，歸本靜故。  
是識常寂滅者，諸識本來無生無滅，無生滅故，性常寂滅。  
今了見時，永滅如是寂滅之識，故言寂滅亦寂滅也。  
所以然者，彼寂滅識，是無常法，所以滅彼，乃得常故。  
至下摠持品，是義當顯，又此本來寂滅之性，不守常性，故言亦寂滅。

### 【論】

이 아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한결같은 결과(常果)를 설한 것이고, 나중은 한결같은 원인(常因)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상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두 구절이 있으니, 법의 영원함(法常)과 부처의 영원함(佛常)을 말하고 있다.

처음 중에 ‘상법은 상법이 아니라’ 함은, 부처님이 스승으로 삼는 법신의 체(體)는 생멸상(생겨나고 사라지는 양상)을 떠나 있으므로 ‘상법(한결같은 현상)’이라 말하였고, 언제나 머물러 있는 성질(常住性)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아니라(머물러 있는 현상이 아니다)’하였다.

“언설도 없고 문자도 없다.”는 것은 설명하는 주체의 명칭과 언어가 없는 것이다.

“진리도 없고 해탈도 없다. 함은 (상법은) 드러난 진실의 뜻(所詮實義)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없는 것도 없고 경계도 없지만 모든 허망과 단멸의 변견을 떠나 있다.”는 것은 필경무(畢竟無\_토끼의 뿔 같은 것)도 없고 또한 만유의 경계도 없는데, 만유의 경계가 없으므로 망집의 경계를 떠나 있고, 무無가 없으므로 단견의 경계를 떠나 있다. ‘변견’은 경계의 다른 이름이다.

“이 상법은 무상도 없지만 모든 상견과 단견을 떠나 있다.”는 것은 무상이 없으므로 모든 단견이 없고, 또한 이것은 상법이므로 모든 상견을 떠나 있다. 곧 상견에 집착된 것은 상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은 법의 영원함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부처의 영원함을 드러낸다.

“분명하게 본다면 분별식이 그대로 상법이 된다.”는 것은 저 영원한 법을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보면, 분명하게 보는 순간 모든 식이 상常(한결같아짐)이 된다. 왜냐하면 깨치기 이전에는 무명에 따라 본연의 평온한 마음(本靜心)을 동요시켰지만 깨친 이후는 분명하게 봄에 따라 본연의 평온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식이 항상 적멸하다.”는 것은 모든 식은 본래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니 곧 생멸이 없기 때문에 제식의 자성은 언제나 적멸하다.

지금 똑똑히 보아서 그와 같은 적멸한 식(識)이 영원히 없었으므로 ‘적멸이라는 그것도 적멸하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저 적멸식(寂滅識)이 무상한 법이므로 그 무상법을 소멸시켜야 이에 상법이 터득되기 때문이다. 이하 「총지품」에서 이 뜻이 이어져 드러날 것이다. 또한 본래 적멸한 자성은 상의 자성(常性)을 고수하지 않으므로 “또한 적멸하다.”고 한다.

664a8-665a9

### 【經】

‘善男子，知法寂滅者，不寂滅心，心常寂滅。得寂滅者，心常眞觀。

【經】 “선남자야, 법이 적멸한 줄 아는 자는 마음을 적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적멸하기 때문이다. 적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늘 사실 그대로 이해한다.

664a10-665a17

【論】

此下，第二示其常因。於中有二，別明摠結。

別中亦二，先眞證觀，後方便觀。初中言 知法寂滅者者，初地已上，

知一切法本來寂滅故。既知無起故，不滅心，不滅心者，常寂滅故。

是顯所知之寂滅也。得寂滅者，心常眞觀者，是明能證之心，

常住隨所證理，離生滅相，而恒不失眞照觀故。

【論】 이하는 두 번째인 (여래장에 들어가는) 그 한결같은 원인(示其常因)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별적인 설명과 둘째는 총체적인 결론이다.

개별적인 설명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증관(眞證觀)이고, 둘째는 방편관(方便觀)이다.

첫째에서 “제법이 적멸한 줄 아는 자”라고 한 것은 초지 이상에서 일체법이 본래 적멸한 줄을 아는 것이다. 이미 기동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적멸케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적멸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항상 적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지(所知)의 적멸을 드러낸 것이다. “적멸을 터득한 자는 마음으로 항상 진증관을 행한다.”는 것은 곧 증득의 주체인 마음이 상주하면서 증득의 대상이 되는 도리를 따라 생멸상을 떠나서 항상 진조관(眞證觀)을 잃지 않음을 설명한 것이다.

-진증관眞證觀

665a18-665a20

【經】

‘知諸名色，唯是癡心，癡心分別，分別諸法，更無異事，出於名色。

知法如是，不隨文語，心心於義，不分別我。

【經】

모든 명칭과 색상(정신과 육체)은 오직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써 모든현상을 분별한 것이지 그 밖의 다른 것이 명칭과 색상을 출현시킨 것이 아니다. 제법이 이와 같은 줄 알면 문자 및 언어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마다 진실한 의미에 계합하여 자아를 분별해 내지 않는다.

665a21-665b12

【論】

是第二 明其方便觀。於中有二，先明唯識尋思，後顯其如實智。  
 初中言 更无異事，出於名色者，名謂四蘊，色是色蘊，諸不相應，  
 皆假建立，離此名色，更無別體。故諸有爲之事，皆爲名色所攝。  
 如是諸法，唯心所作，離心無境，離境無心。如是名爲唯識尋思。  
 如『華嚴經』言，心如工畫師，畫種種五陰，一切世間中，無法而不造。  
 如心佛亦爾，如佛衆生然，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故。已明尋思，  
 次顯如實智。知法如是，不隨文語者，是名尋思所引如實智故。  
 心心於義，不分別我者，是義尋思所引如實智故，人法二我，  
 皆無有義，所以於中，不分別故。

【論】

이는 둘째로 방편관(수단과 방편을 통한 이해)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유식(唯識)의 심(尋)과 사(思)를 설명하고, 다음에 그 사실 그대로 아는 지혜(如實智)를 드러내었다.

처음에 말한 “그 밖의 다른 것이 명칭과 색상을 출현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칭(정신)은 사온四蘊(受蘊·想蘊·行蘊·識蘊)이 네가지 무더기 이고, 색상(육체)은 색온色蘊(색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들의 무더기)이며, 모든 사용하지 않는 현상(不相應法)은 임시로 건립된 것이니 이 정신과 육체에서 벗어난 또다른 별개의 실체는 없다.

모든 유위(有爲)의 현상들은 다 명칭과 색상에 속한다. 이와 같이 제법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 경계가 없고 경계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 이것을 유식의 심(尋)과 사(思)라 한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오음을 그려 내네  
 일체의 세계 가운데에  
 만들어 내지 못함 없네  
 마음처럼 부처도 그렇고  
 불처럼 중생도 그러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이 셋은 차별이 없다네<sup>12)</sup>

여기까지 심사(尋思)를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사실 그대로 아는 지혜(如實智)를 드러내었다. ‘법이 이런 줄 알아서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는다’ 함은 명칭의 심·사에 의해 이끌려 나온 여실지이다. “마음마다 진실한 의미에 계합한다.”는 것은 뜻(義)의 심·사에 의해 이끌려 나온 여실지이기 때문이다. 인아(人我)와 법아법아(法我) 에는 모두 여실지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我)를 분별하지 않는다.

665b13-665b14

【經】

12) 이 글은 총34품으로 이루어진 60권본『大方廣佛華嚴經』 권10(T9, 465c26~29)에 나온다. 원효는 경전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문을 부분 발췌하거나 내용을 재구성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화엄경 원문에 수록된 계송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知我假名，即得寂滅，若得寂滅，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經】

나라는 것이 가명(假名)임을 알면 적멸을 얻을 것이며, 적멸을 얻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을 것이다.

665b15-665b16

【論】

此是第二摠結。前二結前方便，而得眞觀，又結眞觀，得菩提果。

【論】 이는 둘째로, 앞의 두 가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앞의 방편관을 결론지어 진증관을 터득하고, 또한 앞의 진증관을 결론지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과를 터득한다.

665b17-B21

【經】

爾時，長者梵行，聞說是語，而說偈言。名相分別事 及法名爲三，眞如正妙智 及彼成於五<sup>13)</sup>。我今知是法 斷常之所繫，入於生滅道，是斷非是常。如來說空法，遠離於斷常。

【經】

그 때 범행장자가 이 말씀을 설하는 것을 듣고 계송을 설하여 여쭙었다.

명상(名相)과 색상 및 분별망상의

이런 법들을 셋이라 말하고

진여 및 정묘지까지 합하면

그것은 모두 다섯이 된다네

제가 지금 알기로 이 법들은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 얽매어 있고

생멸하는 길에 들어 있으므로

이는 단멸일 뿐이지 상법이 아닌데

여래께서 말씀하신 공(空)한 법은

단견과 상견을 멀리 떠났나이다.

665b22-666a2

【論】

13) 모두 다섯이 된다네 : 『金剛三昧經通宗記』 권10(X35, 371b)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오법의 명칭을 드러낸 것이다. 곧 명명과 상상과 망상妄想과 여여如如와 정지正智의 오법이다. 말한 바 분별사分別事는 제7식으로서 곧 망상을 가리킨다. 법法은 곧 명과 상과 망상의 법이다. 그리고 진여眞如와 정묘지正妙智는 곧 여여如如와 정지正智이다.(此顯五法名。即名相妄想如如正智五法也。所云分別事。指第七識。即妄想。法即名相妄想之法。眞如正妙智即如如正智。)”

此下, 第二長者演說. 於中八頌, 即有三意. 初二頌半, 判佛教意, 次有五頌, 破二邊執, 最後二句, 亦無二觀. 初中有二, 前二頌, 明墮二邊教, 後二句, 顯離二邊教. 初中言 名相者, 謂名句字. 句是名所成, 字是名所資, 皆能表名, 合爲名相也. 分別事者, 謂諸有漏心心法事. 言及法者, 謂除前二, 所有法相. 名句所詮, 分別所緣, 謂十色處及法處中色不相應等諸法相也. 是三一類, 明雜染相, 所以別說 名爲三也. 言眞如者, 謂正智境, 正妙智者, 本後二智. 言及彼者, 及彼前三, 此二及彼三, 合成於五事. 是舉三乘教門法相. 我今知, 是法斷常之所繫者, 明彼教門所說五事, 不離斷常二見所着. 所以然者, 彼四種法, 帶生滅相, 不離斷見所着之境, 其眞如法, 是常住性, 不離常見所取之境故. 入於生滅道, 是斷非是常者, 別明前三及正智法, 皆帶四相, 入生滅道, 直是斷邊, 異於常邊, 卽顯眞如入常有道, 直是常邊, 異斷邊也. 如來說空法, 遠離於斷常者, 明一乘教說三空法, 遠離斷常二邊過失. 所以然者, 如前所說, 空相亦空, 空空亦空, 所空亦空. 如是三空, 不壞眞俗, 不存眞俗, 雖離動靜, 不住中間, 所以遠離 斷常邊也

【論】 이 글은 (入果常法을 如來說, 長者演, 大衆得益으로 나눈 가운데) 두 번째로 장자가 연설한 부분이다. 도합 여덟 계송(頌)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뜻으로 나뉜다. 첫 계송 둘과 절반<sup>14)</sup>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뜻을 가름한 것이며, 다음에 나오는 계송 다섯<sup>15)</sup>은 양 극단에 치우친 견해의 집착을 깨뜨린 것이며, 마지막 두 구절은 또한 둘로 나누지 않는 이해\_무이관(無二觀)를 드러낸 것이다.

처음 (인 계송 둘과 절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앞의 두 계송은 양 극단의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밝혔고, 뒤의 두 구절은 양 극단의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명칭과 색상(名相)’이라 한 것은 명칭(名)과 문장(句)과 글자(字)를 일컫는다. 문장(句)은 명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글자(字)는 명칭(名)이 의지하는 것이어서 모두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니, 합쳐서 명칭과 색상(名相)이라 한다. 분별현상(分別事)이란 모든 번뇌가 스며드는 마음과 마음현상(有漏心心法事)을 말한다.

이런 법들 이란 앞의 두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상으로서, 명칭과 문장에 의해(名句) 나타내지거나 분별의 연(緣)이 되는 것이다. 곧 명·구·문·구·문·구의 소전과 분별의 소연으로서, 십색처(十色處)<sup>16)</sup>

14) 처음 계송 둘과 절반이란 위에 나오는 경문의 계송 전체를 가리킨다. 즉, 名相分別事 及法名爲三, 眞如正妙智 及彼成於五. 我今知是法 斷常之所繫, 入於生滅道, 是斷非是常 까지 계송 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다음의 如來說空法, 遠離於斷常은 절반의 계송에 해당한다.

15) 계송 다섯이란 이 경문에 이어서 차례로 등장하는 계송들을 가리킨다.

16) 십색처(十色處):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의 오근(五根)과 색(色) 빛(光) 갈(光) 형(形) 상(相) 성(聲) 처(處) 소리(聲) 소(所) 리(理) 향(香) 처(處) 냄새(氣) 미(味) 처(處) 맛(味) 촉(觸) 처(處) 감(觸) 촉(觸) 오(五) 경(境)을 합친 ‘물질적 유형성을 지닌 현상들의 10가지 범주. 범주는 십색처에 의거하여 생겨나는 ‘유형성과 관련된 개념적 현상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등의 논서에서는 범처소섭색 法處所攝色 이라고 부른다.

및 법처(法處) 중의 색불상응 등 모든 법상을 가리킨다.

명칭과 색상과 분별망상의 세 가지 법은 같은 부류지만 갖가지 오염의 양상(雜染相)임을 밝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셋이라 한다”라고 별도로 말하였다.

‘진여\_참 그대로(眞如)’란 사실대로 보는 온전한 지혜의 경계를 가리키고, ‘정묘지\_온전하고 오묘한 지혜(正妙智)’란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 이 두가지 지혜이다.

“그것은 모두”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와 앞의 세 가지를 합하면 다섯 가지가 된다. 이것은 세 종류의 수행자들(성문·연각·보살)의 가르침의 체계와 그 특징을 거론한 것이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법이란 단견과 상견에 얽매어 있고”는 저 삼승 교문에서 설한 바 다섯 가지가 단견과 상견의 집착에서 떠나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왜냐하면 저 네 가지 법(명칭·색상·분별망상·진여) 가운데 앞의 세 가지 법은 생멸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단견에 집착하는 경계를 떠나 있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진여법은 상주하는 자성으로서 상견에 집착하는 경계를 떠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멸의 가르침에 들어 있어 단멸일 뿐이지 상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의 세 가지와 온전한 지혜현상이 모두 네 가지 양상(相:生·住·異·滅)을 지니고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길로 들어가므로 단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치우침이어서 항상있다는 견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따로 밝힌 것인데, 곧 참 그대로는 항상 있음의 길로 들어가므로 단지 항상 있다는 견해이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견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공한 법은 단견과 상견을 멀리 떠났나이다’ 함은 일승(一乘)의 교설인 3공(空)의 법이 단·상 두 극단에 치우친 과실을 멀리 떠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앞에서 말했듯이 공상(空相)도 공하고, 공공(空空) 역시 공하고, 소공(所空)도 공하다는 이러한 3공은 진(眞)·속(俗)을 파괴하지 않고 그렇다고 진·속을 존립시키지도 않으며, 동(動)·정(靜)을 떠났으나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전히 없어짐과 항상있음 이라는 두가지 치우침에서 멀리 벗어난다.

666a3-a4

【經】

‘因緣無不生，不生故不滅，

因緣執爲有，如採空中華，猶取石女子，畢竟不可得。

【經】

인연(원인이 되는 조건)은 없는 것이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

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인연에 집착하여 있는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치 허공 속의 꽃을 따려는 것과 같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낳은(있을 수가 없는)자식을 얻으려는 것과도 같으니,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666a5-a19

【論】

此下，第二破二邊執。於中有二，一者四頌，破有邊執，二者一頌，奪空邊着。初中有二，前二頌半，破其有執，後一頌半，示彼真空。初中亦二。初一頌半，破因緣執，次有一頌，破餘三緣。初中言 因緣無不生者，謂本識中一切種子與異熟識，若即若離，皆不可得，即如異熟，離猶兔角。不即不離，亦無所有，如瓶舍等，但有名故。由是道理，無生無滅，而依三乘言教學者，定執實有因緣種子，不異愚者欲採空華，亦如欲取石女之子。同彼，因緣永不可得。此中空華，喻於染種，爲採滅故，石女兒者，喻於淨種，爲取養故。

**【論】**

이 아래는 두 번째인 양 극단의 치우친 견해의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인 네 계승은 있다는 치우친 견해(有邊)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고 둘 째인 '한 계승'은 없다는 치우친 견해(空邊)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앞의 계승 둘과 절반은 그 있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고, 뒤의 한 계승과 절반은 실체가 없는 참된 지평(眞空)을 제시하는 것이다. 처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부분인 한 계승과 절반은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다음에 있는 계승은 나머지 '세 가지 조건'(증상연, 소연연, 등무간연)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첫 부분에서 말한 '원인이 되는 조건'은 없으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라 한 것은 근본이 되는 식\_제8아외야식(本識)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니, (종자와 이숙식)이 붙어 있다면 (종자는) '다르게 무르익어가는 식(異熟識)'과 같은 것이고 떨어져 있다면(종자와 이숙식은 별개로 있을 수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토끼 뿔과 같은 것이다.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아도 또한 있는 것이 없으니, 마치 병이나 집 등과 같이 단지 명칭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지만 세 종류의 수행자들이 말하는 교학에 의거하는 자는 '원인이 되는 조건인 종자'에 확고하게 집착하니, 어리석은자가 허공 속의 꽃을 따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낳은 자식'을 얻으려는 것 과도 같다. 이는 원인이 되는 조건을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허공 속의 꽃은 오염된 종자에 비유한 것이니 따서 없애려 하기 때문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낳은 자식이란 청정한 종자에 비유한 것이니 얻어서 기르려 하기 때문이다.

666a20-a21

**【經】**

離諸因緣取，亦不從他滅，及於己義大，依如故得實。

**【經】**

모든 인연에 대한 취착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에 의하여 멸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본래의 큰 뜻에 있어서 진여에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을 얻는다.

666a22-b14

**【論】**

此是破餘三緣，若有離諸種子因緣，取餘三緣，  
計從彼生，作如是執，亦不應理 如經 亦不從他滅故。  
此言他者，謂增上緣及所緣緣。如眼識生，依眼緣色，  
如是眼色與識俱時，而非識性，故名爲他。等無間緣，  
雖是識類，而體已滅，故名爲滅。若他若滅，皆無自性，  
是故識生，亦不從彼。

【論】 이는 나머지 세 가지 연(증상연, 소연연, 등무간연)을 깨뜨리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인연에서 벗어났어도 나머지 세가지 조건을 취하여 그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집착을 지어내는 것 또한 도리에 맞지 않으니『금강삼매경』에서 “타(他)에 따라서 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타(他)란 증상연\_증폭시키는 조건들(增上緣)과 소연연\_관계맺는 대상이 되는 조건들(所緣緣)을 가리킨다. 만약 ‘시각 인식’이 생겨나려면 눈에 의거하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色)을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눈과 색과 식이 때를 함께 할지라도 식의 본질은 아니니, 그러므로 타(他)라고 이름한다.

등무간연\_끊어지는 순간 없이 앞의 마음이 뒤의 마음을 발생시키는 조건(等無間緣)은 비록 식의 부류이지만 그 자체(體)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멸(滅)이라고 부른다. 타(他)이든 사라진 것 이든 모두 자성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식이 생겨남도 또한 그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次言及於己義大者，復有計言，蘊界等法，未來世中，各有己體，  
而未生現，從此己體，而生現在。爲遮此計，故言亦不從及於己義大。  
上句不從之言，貫於此下句故。此言義者，謂陰界入，大者，四大，  
如前說故。計此等法本有自體，以之故言己義大也。依如故得實者，  
謂我能破諸有執者，依如理破，故得實義。

다음으로 “자기의 의(義)와 대(大)에까지”라고 말한 것은, 다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온·계 등의 법은 미래세 가운데 각각 자기의 본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현재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며, 이 자기 본체로부터 현재의 법이 생겨난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막기 위하여, “또한 자기의 의와 대에 의해서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윗구절의 “~로부터 아니다[不從]”라는 말이 이 아랫구절까지 이어져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義)’란 음·계·입, 곧 오온·십팔계·십이처를 말하고, ‘대(大)’란 사대, 곧 지·수·화·풍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러한 법들이 본래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를 ‘기의대(己義大)’<sup>17)</sup>라고 말한 것이다.

”사실 그대로에 의거하기 때문에 참됨을 얻는다”는 것은 (범행장자) 자신이 여여한 도리에 의거하여 유에 대한 모든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니, 그러므로 진실한 뜻(實義)을 얻는다는 말이다.

666b15-b17

【經】

17) 己義大 기의대 /義: 陰界入, 곧 오온·십팔계·십이처 大: 四大, 곧 지대·수대·화대·풍대 己: 각각의 법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 본체, 자성 따라서 己義大는 오온·십팔계·십이처와 사대가 각각 본래부터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라고 풀 수 있다.

是故眞如法，常自在如如，一切諸萬法，不如識所化。  
離識法卽空，故從空處說。

【經】

그러므로 진여의 법은 항상 자재하고 여여하다.  
일체의 온갖 법은 식이 변화시켜 나타낸 것과 같지 않다.  
식을 떠난 법은 곧 공하므로, 공의 자리에서 말한다.

666b18-b24

【論】

此是第二示眞空法，言是故者，是前執有皆是虛妄，其能破者，得實之故，眞如不動，妄法不成也。識所化者，謂識所計，彼所計相，理无所有，直從情有，故名所化。諸法非如識所化故，離識之法，空無所有，是故我從空處說如。

【論】

이는 둘째로 진공법(眞空法)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是故]”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있음에 대한 집착’이 모두 허망하며, 그것을 능히 깨뜨리는 자가 진실을 얻기 때문에, 진여는 움직이지 않고 허망한법은 성취되지 못한다.  
“모든 분별식의 변화[識所化]”란 식이 헤아려 세운 것을 말한다. 그 헤아려진 상은 이치상으로는 있는 바가 없고, 다만 정식情識, 곧 망정에 따라 있는 것이므로 ‘식이 변화시킨 것’이라고 이름한다. 모든 법은 진여가 아니라 식이 변화해낸 것이기 때문에, 식을 떠난 법은 공(空)하고 있는바가 없다(無所有). 그러므로 나(범행장자)는 공의 도리에서 진여를 설한다.

666c1-666c2

【經】

‘滅諸生滅法，而住於涅槃，大悲之所奪，涅槃滅不住。

【經】

모든 생멸의 법을 멸하고, 열반의 경지에 머문다 해도,  
그 자비로써 열반 마음 빼앗겨, 열반의 적멸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666c3-666c11

【論】

上文，已破凡夫執有，此頌，亦奪二乘住空。謂二乘人，滅諸身智生滅之法，入於涅槃，於中八萬劫住，乃至十千劫住，而由諸佛同體大悲，奪彼涅槃，令還起心。起心之時，涅槃卽滅，如大商主，滅其化城，是故，於中不復住也。彼無心時，不得正破，直顯諸佛奪彼涅槃，因是遮彼未入者志。上來已破有無二邊。

【論】

앞의 글에서는 이미 범부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렸다. 이 계송에서는 또한 이승(성문승과 연각승)이 공에 머무르는 것을 빼앗는다. 말하자면 이승의 사람들은 몸과 지혜에 속한 모든 생멸법을 멸하고 열반에 들어간다. 그 가운데서 팔만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 만 겁 동안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동체대비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반을 빼앗아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열반은 곧 사라진다. 마치 큰 상인이 그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는 것과 같다.<sup>18)</sup>그러므로 그 가운데 다시는 머물지 않는다. 그들이 무심한 때에는 바로 깨뜨릴 수 없다. 다만 모든 부처님이 그들의 열반을 빼앗는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로 인해 아직 열반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뜻을 막는다. 이상으로 이미 유와 무의 두 극단을 깨뜨렸다.

666c12

【經】

轉所取能取，入於如來藏。

【經】

취해지는 대상(所取)과 취하는 주취(能取)를 전환하여  
여래장(如來藏)에 들어간다.

666c13-666c15

【論】

此是第三示無二觀。已破凡聖二邊之執故，今轉彼凡聖二衆，  
令入能所平等之觀。上來八頌，長者演也。

【論】

이는 셋째로 무이관(無二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미 범부와 성인의 양변에 대한 집착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저 범부와 성인의 두 대중을 전환시켜, 능취와 소취가 평등한 무이관에 들도록 한 것이다.

이상의 여덟 계송은 범행장자가 부연한 것이다.

666c16-666c17

【經】

爾時，大衆，聞說是義，皆得正命，入於如來如來藏海。

【經】

그 때 대중이 이러한 뜻을 듣고 모두 정명(正命)을 얻어 여래와 여래장의 바다에 들어갔다.<sup>19)</sup>

---

18) 「화성비유품」 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쳐 포기하려 할 때, 인도자가 임시로 성을 만들어 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므로, 사람들이 다시 나아갈 힘을 얻으면 그 성을 없앤다.

『묘법연화경』 권3(T9, 26a6~13)

19) 그때 대중이~여래장해에 들어갔다 : 『金剛三昧經通宗記』 권10(X35, 318b)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대목은 설법의 뜻을 듣고 얻은 이익을 결론지은 것이다. 교학에서 말하는 비구의 결식은 정명식正命食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4종의 사명식邪命食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체법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사명邪命이라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일체법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정명正命

666c18-666c21

【論】

此是第三大衆得益。得正命者，離有無邊，而得中道正慧命故。入如來者，已入如來智之分故，入如來藏海者，入於本覺深廣義故。

【論】 이는(入果常法을 셋으로 나눈 가운데) 세 번째, 대중이 이익을 얻는 부분이다. '정명(正命)을 얻었다' 는 것은 유·무의 극단을 떠나 중도(中道)의 올바른 지혜의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래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여래가 성취한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여래장의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각의 깊고 넓은 뜻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8. 총지품 總持品

\_(육품의 핵심을)모두 지니게 하는 단원

「己」作「已」次同{甲}。「第八」無{甲}

교감주: 본문의 「己」자는 갑본에서 「已」자로 되어 있으며, 이하 같은 경우도 같다. 또한 「第八」이라는 표기는 갑본에는 없다.

666c23-667a5

【論】

此中，決前諸品中疑，總持要義，而不忘失，故從所爲，名曰總持。又地藏菩薩，已得文義陀羅尼故，總持諸品所有文義，及憶大衆起疑之處，次第發問，善決諸疑，故從能問名曰總持。

【論】

여기 「총지품」에서는 앞의 모든 품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핵심적인 뜻을 빠뜨림 없이 지니서 잊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행하는 것을 따라 '총지'라 한다. 또한 지장보살이 이미 문외사라니(文義陀羅尼)글과 그 글의 뜻을 빠뜨림 없이 지니는 능력(力)을 터득한 까닭에 모든 품에 들어 있는 경문의 뜻을 빠뜨림 없이 지니고 또 대중이 일으킨 의심의 내용을 기억해서 차례대로 질문하여 모든 의심을 잘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묻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빠뜨림 없이 지니게 함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다. 위의 계승에서 설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모두 정명식을 얻었다고 말한다. 여기 대목에서는 자성의 체體와 용용을 설명하고 있다. 곧 여래지에 들어가서 제불의 구경지究竟智와 원만하고 청정한 법신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여래장해如來藏海이다.(此結聞義咸益。教中謂比丘乞食。謂之正命食。以破四種邪命食故。今此以受於一切法。即名邪命。若不受一切法爲正命。如前偈中所說。即是此義。故云皆得正命。於此明自性體用。即是入於如來。得諸佛究竟智。圓滿清淨法身。是爲如來藏海也。)"

667a6-a12

【經】

‘爾時，地藏菩薩，從衆中起，至于佛前，合掌胡跪，而白佛言。  
尊者 我觀大衆，心有疑事，猶未得決。今者如來欲爲除疑，  
我今爲衆，隨疑所問。願佛慈悲，垂哀聽許。佛言，菩薩摩訶薩  
汝能如是救度衆生，是大悲愍，不可思議，汝當廣問，爲汝宣說。

【經】

그 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무릎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존자(尊者)시여, 제가 보기에 대중들은 마음에 아직 해결하지 못  
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래께서 의심을 없애주려 하시니, 제가 대중들을 위해 의  
문에 따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써 애처롭게 여기어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아, 네가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니, 그것은 곧 대비  
(大悲)로써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질문하라. 그대를 위해 펼쳐 말할 것이  
다.

667a13-23

【論】

正說之內，大分有二，別明觀行，竟在於前。此下，第二摠決諸疑。  
就文有四，初請，次許，三決，四領。此問與答，是請及許，此能請者，  
名地藏者。是人已得同體大悲，生長一切衆生善根，猶如大地生諸草木。  
以陁羅尼持諸功德，惠施一切，而無窮盡，如大寶藏，珍寶無盡。由是二義，  
名爲地藏。今此品中，決諸疑惑，生諸信解，出諸決斷之寶，  
以施求法之衆，義當其名，故能請問。

【論】

정설분(正說分)을 크게 둘로 나누었고, 그 중 하나인 각각의 관행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別明觀行]이 앞에서 끝났다. 여기서부터는 정설분 중 두 번째로 모든 의문을 총괄적으로 해  
결하는 부분[摠決諸疑]이다.  
이 중에도 넷이 있는데 청하는 부분[請], 허락하는 부분[許], 의심을 해결하는 부분[決], 이해하  
는 부분[領]이다. 위 경문에 나오는 문답은 청함과 허락함이다. 여기서 청하는 이는 지장보살이  
다. 이 사람은 이미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얻었으므로, 대지[地]가 초목을 키우듯 모든 중생의  
선근(善根)을 다 키우고 자라게 한다. 다라니로써 모든 공덕을 간직하고, 큰 보배 창고[藏]에  
진귀한 보배가 끝없듯이 모든 중생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푼다. 이러한 두 가지 뜻을 따서 그  
의 이름을 ‘지장(地藏)’이라 한다. 지금 이 「총지품」에서는 모든 의혹을 해결하고, 모든 신해를  
발생하며, 모든 것을 결단하는 보배를 나타내어 법을 추구하는 대중에게 베풀어 준다. 이처럼  
뜻이 지장이라는 명칭<sup>20)</sup>에 합당하므로 청문請問할 수 있는 것이다.

20) 지장이라는 명칭 : 『金剛三昧經註解』 권4(X35, 247b)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지能持하는 것  
은 지地和 같고, 소지所持하는 것은 장藏과 같은 까닭에 지장보살이라는 명칭으로 「총지품」을 드러낸  
다. 또한 능능을 벗어나고 소所를 단절하는 것은 마치 지地가 담고 있는 만물과 같고, 만유를 함육술

667a24-b3

【經】

‘地藏菩薩言，一切諸法，云何不緣生，爾時，如來欲宣此義，而說偈言，若法緣所生，離緣可無法，云何法性無，而緣可生法。

【經】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일체의 제법이 어째서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여래께서 이 뜻을 펴고자 계송으로 설하셨다.

“만약 법이 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으리라.

본래부터 일체법의 자성이 없는데 연으로부터 발생할 법인들 있겠는가.”

667b4-b15

【論】

此下，第三正決諸疑。於中有二，一者，六品六疑却次而決，

二者，一品三疑順次而遣。初中亦二，一者別決，二者總定。

初別決中，別決六疑，從後向前，漸却而決。今此問答，決如來藏品中起疑。

彼言因緣無不生，不生故不滅，於中執有能生因緣，而疑其果何不緣生。

故乘彼疑，以問緣生，如來一頌，正決是疑。於中上半，定彼本執，

下半，乘彼破其緣。此意正立。緣不生法。望無法故。如望兔角。

由是比量，彼疑決矣。

【論】

이하는 세 번째인 모든 의심을 곧장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의 여섯 가지 품의 여섯 가지 의심을 역순으로 해결해 주고, 둘째는 한 가지 품<sup>21)</sup>의 세 가지 의심을 순차로 없애 준다.

첫째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고, 둘째는 총체적으로 결정해 준다.

첫째의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여섯 가지 의심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곧 나중 것부터 앞의 것을 향하여 점차 거꾸로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답은 「여래장품」에서 일어난 의심을 해결해 준다.

「여래장품」에서 ‘인연은 없는 것이라 생기지 않으니, 생기지 않으므로 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체의 인연이 있다고 집착하여 “그 과보인들 어찌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한다. 그러므로 그 의심에 대하여 인연으로 발생한 것(緣生)을 질문한다. 이에 여래께서 한 계송으로 그 의심을 곧장 해결해 준다. 제1구와 제2구는 본래의 집착을 결정해 준 것이다. 제3구와 제4구는 그렇게 인연이 발생한 것을 타파해 준다. 이 뜻을 제대로 나타내면 “인연은 제법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치 토끼의 뿔과 같이 본래

育하는 것은 마치 지지가 만물을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能持如地。所持如藏。故地藏菩薩表之也。又離能絕所。如地之持物。含育萬有。如地能藏也。)”

21) 한 가지 품 : 「如來藏品」을 가리킨다.

없는 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된다. 이것은 비량(比量<sup>22)</sup>을 말미암아 저 의심을 해결해 준 것이다.

## V. 『금강삼매경론』의 내용과 분석

『금강삼매경론』의 정설분의 특이점은 앞의 육품과 제7 「총지품」으로 구성된다. 앞의 육품은 각각 관행을 별도로 드러내지만 뒤에 이어지는 「총지품」은 앞의 품들에서 제기된 의정(疑情), 곧 의심을 통틀어 결단하는 역할을 한다. 원효는 서분의 「서품」과 달리 정설분의 여섯 품을 여섯 갈래로 자세히 해명하고, 「총지품」은 앞의 모든 품 가운데 남아 있는 의심을 결단하여 중요한 뜻을 잊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풀이한다.<sup>23)</sup> 이 때문에 「총지품」은 단순한 부록이 아니다. 그것은 앞의 6품 관행을 총괄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남는 의혹을 해소하는 정설분의 한 축으로 역시 유기적 관계에 있다.

먼저 「무상법품(無相法品)」은 분별상이 없는 관찰, 곧 무상관(無相觀)을 밝힌다. 무상(無相)은 모든 형상을 타파한다는 뜻이며, 여기서 법(法)은 관찰되는 법, 곧 일심법(一心法)을 가리킨다. 김호귀는 무상법품의 핵심을 “분별상이 없는 관찰”로 요약한다. 일체중생은 본래 일심과 본각이지만 무명으로 인해 환상을 따라 유전한다. 그러므로 수행의 출발점은 분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데 있다<sup>24)</sup>. 무상법품은 모든 수행의 첫 단계에서 왜 상(相)을 비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중생은 형상과 개념에 집착하여 그 집착을 실제라고 오인한다. 원효에게 무상관은 바로 이 오인의 구조를 깨뜨리는 관행이다.

둘째, 「무생행품(無生行品)」은 무생(無生)과 무생을 터득하는 행(行)을 밝힌다. 무상법품에서 모든 분별상을 없앴더라도, 아직 ‘관찰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관찰심 자체가 다시 집착이 된다. 그러므로 둘째 단계에서는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비워야 한다. “비록 모든 분별상을 없앴더라도 만약 관찰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그 관찰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본각을 모르게 된다”고 설명한다.<sup>25)</sup> 무생행품은 단지

22) 비교하고 추론하여 아는 인식입니다. 불교논리학, 특히 디그나가·법칭 계통에서는 바른 인식의 두 방식 가운데 하나로 설명됨. 現量 현량: 직접 지각으로 아는 것, 比量 비량: 근거를 통해 추론하여 아는 것

23) 고영섭,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p.155

24) 김호귀, 「『금강삼매경론』의 선수행론 고찰」, p.101-102, p.106-107

25) 김호귀, 위의 글, p.107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하고 있다는 주체의 미세한 집착까지 비우는 수행을 제시한다.

셋째, 「본각리품本覺利品」은 본각에 의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구조를 밝힌다. 무상과 무생의 관행을 통해 상분별과 관찰심의 집착을 비우면, 수행자는 중생이 본래 적정하여 그대로 본각임을 통달하게 된다. 이때 본각은 자기 깨달음의 근거에 머물지 않는다. 본각의 자각은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보살이 관행을 닦아 무생법인을 터득한 뒤, 중생이 본래 적정하여 그대로 본각임을 알고,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원효의 수행론은 자각自覺과 각타覺他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넷째, 「입실제품入實際品」은 허상으로부터 실제實際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각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생은 허망한 상相에서 벗어나 실제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란 허환虛幻을 떠난 궁극의 자리를 뜻하며, 입入은 깨침을 통해 실재를 터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효에게 실재는 다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실재는 무제無際를 실제로 삼고, 들어감은 무입無入을 들어감으로 삼는다.<sup>26)</sup>이 말은 진실에 들어간다는 수행조차 다시 하나의 실제적 도달점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진성공품眞性空品」은 일체행이 진성眞性和 진공眞空에서 나왔음을 밝힌다. 앞의 네 품이 내행內行과 외화外化의 구조를 형성한다면, 진성공품은 그 모든 수행과 교화가 진성과 진공의 지평 위에서 성립함을 보여준다. 무상과 무생은 향상向上의 상구보리上求菩提이고, 본각리와 입실제는 향하向下의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그러나 향상과 향하는 모두 본래성불에 근거한 자리의 수행이자 깨침의 회향이므로 결국 진성공으로 나아간다. 이 구조는 『금강삼매경론』의 수행론이 자기 해탈과 타자 교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섯째, 「여래장품如來藏品」은 무량한 법문이 여래장에 들어 있음을 드러낸다. 진성에 의해 만행萬行이 갖추어질 때, 수행자는 여래장 곧 일미의 근원에 들어간다.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무위無爲가 되고, 무위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설

---

26) 26) 김호귀, 위의 글, p.107

명한다. 이때 집착과 분별이 없는 평등한 경지인 무소득無所得의 일미가 『금강삼매경』의 종종이자 요점이 된다. 여래장품은 수행이 어떤 외부의 새로운 법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일심과 본각의 지평에 갖추어진 무량한 법문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여섯 품을 하나의 구조로 읽어낸 것이 박태원이 말한 원효의 “6품 해석학”이다. 박태원에 따르면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8품 가운데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각리품」, 「입실제품」, 「진성공품」, 「여래장품」의 여섯 품을 삼매 성취를 위한 관행의 핵심 구조로 해석한다. 여기서 여섯 품은 독립된 교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분별相分別의 해체에서 시작하여, 관찰심의 해체, 본각의 자각, 실제에 들어감, 진성과 진공의 통찰, 여래장 일미로의 귀입에 이르는 수행의 연속 과정이다.

따라서 『금강삼매경론』의 내용은 세 층위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6품은 관행의 차제를 이룬다. 무상법품과 무생행품은 상구보리의 향상문이고, 본각리품과 입실제품은 하화중생의 향하문이며, 진성공품과 여래장품은 이 둘이 진성·진공·일미로 수렴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둘째, 「총지품」은 앞의 6품을 통해 드러난 수행의 의혹을 결단하고, 식識과 일심의 문제를 공적의 지평에서 다시 정리한다. 셋째, 전체 경론은 일심과 본각,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일각의 지평으로 귀결된다. 결국 『금강삼매경론』은 공성의 철학, 마음의 분석, 본각의 자각, 이타의 실천을 하나의 일미관행으로 조직한 원효의 대표적 수행론이라 할 수 있다.

## VI. 분항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특징과 영향

원효에 따르면, 『금강삼매경』 6품이 설하는 수행의 초점은 ‘상(相)분별 깨뜨리기, ’개념환각 해체하기’에 있다.<sup>27)</sup> 『금강삼매경론』은 경문의 문자 해석을 넘어서, 경전 전체를 하나의 수행론적 길로 재구성하는 구조적 해석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 논서는 경전 해설서이면서 동시에 원효 자신의 사상 체계가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이문(一心二門) 구조를 『금강삼

27)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 6품 해석학」, 『철학논총』 제77집. 제3권 2014, p400

매경』의 정설분 중 여섯 품과 결합하였다. 이 점 또한 원효의 독창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금강삼매경』을 해석할 때에는 공空, 일심一心, 본각本覺, 삼매三昧, 수행修行의 문제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읽어낸다. 이 점에서 『금강삼매경론』의 내용 분석은 두 층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원효가 『금강삼매경』의 각 품을 어떤 순서와 논리로 해석하는가 하는 주석 구조의 문제이다. 둘째, 그 주석 구조 속에서 원효가 어떤 사상적 핵심을 드러내는가 하는 내용 분석의 문제이다.

원효 해석학이 지닌 독창성은 경전의 정설분(正說分)을 구성하는 6개 품을 단순히 선형적이거나 평면적인 수행 단계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과 품 사이의 역동적인 유기적 결합 방식을 총 6가지의 구조적 유형, 즉 ‘6종의 6품 해석학’으로 범주화하여 다각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 있다. 원효는 텍스트를 하나의 고정된 틀로만 읽지 않고 품들의 관계성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입체적인 주석학을 전개한다.

이는 6개 품을 개별적으로 쪼개어 각각의 처방적 의미를 밝히는 ‘각 품 독립 해석(1품씩 6개로 나누는 유형)’에서 출발하여, 문맥의 유사성과 실천적 지향점에 따라 두 품씩 짝을 지어 주객의 해체, 진리 지평의 획득, 지혜와 자비의 대통합이라는 세 단계로 재조합하는 ‘2개 품 결합 해석(3개 문으로 나누는 유형)’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전체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라는 거대한 인과적 흐름이자 수행의 원인(因)과 결과(果)로 거시화하는 ‘전후 인과 해석(2개 문으로 나누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총 6가지의 상이한 구조적 층위를 넘나든다.

결과적으로 원효의 6품 해석학은 각기 다른 수행의 문(門)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상호 융합되어 결국 하나의 진여 지평인 ‘일미(一味)’로 귀결됨을 보여 줌으로써, 동아시아 불교 주석학사에서 경전의 조직력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구조론적 해석으로 평가받는다.<sup>29)</sup> 또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지닌 독창성의 핵심을 ‘인식의 치유학’으로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분별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믿는 ‘개념 환각(相)’에서 기인하며, 경전의 정설분(正說分)을 이루는 6개 품은 이 환각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해체해 나가는 논리적 연쇄 고리를 드러낸

28) 이병학,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 도서출판 혜안, 2017, p.81

29) 박태원, 위의 책 p.386-401

다.

제1단계: 무상법품 (객관 대상의 환각 해체)

인간이 눈앞의 대상을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실체(自性)로 오인하는 '객관의 환각'을 치유하는 단계이다. 연기(緣起)를 통해 대상의 상(相)이 없음을 밝히는 무상관(無相觀)을 정립한다.

제2단계: 무생행품 (주관 인식의 환각 해체)

대상이 공(空)하다는 것을 깨달은 수행자가, 역설적으로 그 '공함을 바라보고 있는 주관적 마음(인식 주체)'을 다시 실체화하려는 미세한 집착에 빠지는 병을 치료한다. 주객을 모두 타파하여 온전한 불생불멸(無生)의 관행으로 나아간다.

제3단계: 본각리품 (이타행의 본질적 근거)

주관과 객관의 상이 모두 해체된 진실한 공성의 지평, 즉 '본각(本覺)'의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발적이고 순수한 이타심(利他心)과 중생 교화가 가능해진다. 원효는 자아 관념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서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비가 흘러나올 수 있음을 논증한다.

제4단계: 입실제품 (진실 지평으로의 진입)

본각의 이익을 체득한 수행자가 인식 왜곡과 허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온전한 진리의 참모습인 실제(實際)의 영역과 주객의 분리 없이 원융하게 합일되는 국면이다.

제5단계: 진성공품 (지혜와 수행의 공성)

안으로는 분별 상이 없고 밖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온갖 대승적 행위가 전개되지만,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이 결국 '참된 자리가 없는 진성의 공함(眞性空)'에 완벽하게 부합함을 밝힌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리불의 등장은 이 지평을 완성하는 열쇠이다.

제6단계: 여래장품 (무한한 포용성과 완숙)

앞선 인식의 치유, 본각의 실천, 진성공의 지혜가 지닌 무한한 공덕의 문들이 모든 존재를 품어 안는 '여래장(如來藏)'의 대지 위에서 최종적으로 원숙해지고 통합된다.

원효가 제시한 6품 해석학의 종착지는 결국 '일미 해석학(一味解析學)'으로 귀결된다. '일미(一味)'란 모든 차별적 분별과 대립이 사라진 '한 맛'의 진여(眞如) 지평을 의미한다. 원효는 반야 중관의 '공(空)' 사상을 통해 인간 인식의 오류와 개념적 환각을 철저하게 파쇄(제1품, 제2품)하는 동시에, 유가 유식과 여래장 사상을 통해 그 공성의 지평 위에 실천적 이타행과 무한한 공덕의 세계(제3품~제6품)를 건설했다. 즉, 무상(無相)과 무생(無生)이라는 파괴적 논리가 본각(本覺)과 여래장(如來藏)이라는 건설적 수행론과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6품의 구조를 통해 완벽하게 해명한 것이다. 원효의 이러한 일미 주석 구조론은 단순히 경전을 구절마다 풀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텍스트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치료 체계이자 선(禪) 삼매의 역동적 실천 과정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징과 영향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호귀, 「『금강삼매경론』의 선수행론 고찰」, 『불교학보』 제58집, 2011
- 고영섭, 「분항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제7집, 2020
- 고영섭, 『붓다와 원효의 철학』, 학교법인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박태원, 『금강삼매경론.상』, 세창출판사, 2020
- 박태원, 「원효의 선(禪) 사상: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8, 새한철학회, 2012
- 이병학,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 도서출판 혜안, 2017
- 원효, 은정희 송진현 역주, 『(원효의)금강삼매경론』, 서울: 일지사, 2000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불교문화포털-불교백과-불교용어 <https://buddhaland.dongguk.edu>